백화점업계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 돌입

'코세페' 맞춰 15일부터 최대 규모 정기 세일
다양한 볼거리로 차별화된 쇼핑 경험 제공


한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사진=롯데백화점)

백화점업계가 동계 시즌을 앞두고 올해 마지막 정기세일에 돌입한다. 백화점 3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이하 코세페)에 맞춰 15일부터 일제히 연중 최대 규모의 마지막 정기 세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겨울 인기 상품을 혜택가에 구매할 수 있는 '2024 라스트 세일'을 진행한다.

우선 남성과 여성 패션, 아웃도어 등의 6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행사 첫 주말인 오는 15~17일 사흘간은 패션·스포츠 상품군 구매 시 구매액의 10%를 롯데 상품권으로 증정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내내 식음료 매장에서 1만5000원 이상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금액 할인권을 선착순 5만명에게 제공한다.

신세계백화점도 같은 기간 13개 모든 점포에서 올해 마지막 정기 세일을 하고 여성, 남성 패션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50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를 위해 패딩, 코트, 모피 등 겨울옷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렸다고 신세계는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강남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는 국내외 모피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신세계는 행사 첫 주말인 오는 15~17일 제휴카드로 명품이나 패션, 잡화 부문에서 당일 합산 100만원 이상 구매 시 7%의 '신백리워드'를 증정한다.

현대백화점은 해당 기간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인 '더 세일'을 준비했다. 300여개 브랜드의 신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저렴하게 선보인다.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패딩, 코트 등의 겨울옷 물량을 브랜드별로 지난해보다 최대 20% 이상 늘렸다.

오는 15~17일에는 110여개 패션 브랜드를 대상으로 현대백화점카드로 구매 시 구매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사은 혜택을 제공한다.

또 행사카드로 20만원 이상 구매하면 2만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또는 'H포인트'를 제공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이번 세일 기간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프로모션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이와 동시에 연말 시즌을 즐기러 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종완 기자 bjw3631@asiatime.co.kr

우아한형제들
인적자원개발 대상 수상

우아한형제들이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인정받아 인적자원개발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2024년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종합 대상(플랫폼 부문)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HRD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은 1995년 사람중심 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한국 인적자원개발 산업의 위상과 저변 확대에 공헌하고자 민간 주도로 제정됐다.

올해 시상식은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HRD협회는 "우아한형제들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인재 육성에 대한 사명감으로 창의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강의를 통해 한국 인적자원개발의 발전과 위상 정립에 공헌한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HRD 부서의 이름을 '전사교육팀'에서 '성장파트너팀'으로 변경해 운영하며 구성원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 팀은 조직과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종완 기자 bjw3631@asiatime.co.kr

하이트진로
3Q 영업익 전년比 61.5% 성장

하이트진로의 3분기 맥주·소주 분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하이트진로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68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544억원)보다 4.8% 성장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02억원으로 61.5%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맥주부문 매출이 2457억원으로 지난해(2356억원)보다 4.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1억원으로 409.2% 늘어났다.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4월 출시한 '켈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 5억 3000만병을 넘겼고, 2019년 3월 출시된 '테라'는 누적 판매량 50억병을 기록했다.

올해 7월 출시된 '라이트 맥주'인 '테라 라이트'도 실적에 들어갔다.

소주부문 매출은 지난해보다 4.3% 늘어난 3770억원, 영업이익은 53.6% 증가한 481억원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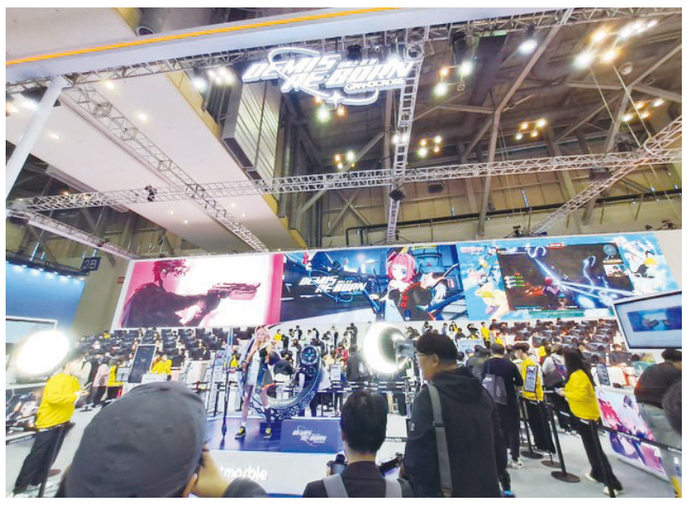
뉴트로 트렌드를 반영해 2019년 4월 출시한 '진로' 소주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 20억병을 기록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올해 마케팅 비용 효율화를 지속하며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민솔 기자 kms@asiatime.co.kr

20살 '지스타' 1375개사 참여…역대 최대 규모

44개국 게임·정보 업체 참여
네트워킹 라운지 대폭 확대


지난해 열린 지스타 2023. (사진= 아시아타임즈 DB)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을 맡은 '지스타 2024'가 이달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지스타 2024'는 올해로 스무돌을 맞았다

개막식에는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올해 지스타의 주요 참가사와 유관기관의 대표 등이 '지스타 2024'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할 예정이다.

올해 지스타는 44개국, 1375개사, 3359부스가 참여했다. 특히 지난해 1037개사였던 참가사와 보다 약 32%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큰 성장세를 보였다.

강신철 지스타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제1전시장 BTC 대형부스가 조기신청 반나절 만에 모두 소진되는 등 지스타에 대한 게임과 유관 업계의 관심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규모라는 성과로 이어졌다"며 "지스타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조직위원회 역시 지스타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구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BTB관은 벡스코 제2전시장 3층에서 진행되며, 작년 896부스보다 확대된 924부스 규모로 구성됐다.

국내 기업으로는 넥슨코리아, 스마일게이트홀딩스, 그라비티, 드래곤플라이 등이 참여했다. 해외 기업으로는 Xsolla, 스페인 대사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한국대표부 등이 전시 부스를 구성했다.

올해 BTB 전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참가자의 수요와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네트워킹 라운지의 규모를 대폭 확대해 쾌적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이다.

지스타의 킬러 콘텐츠로 자리 잡은 G-CON 2024는 이달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벡스코 컨벤션홀 1층에서 개최된다. 지스타 단독 컨퍼런스로 진행되는 G-CON 2024에서는 화제성이 높은 AAA 타이틀과 콘솔게임 개발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청중을 맞이할 예정이다.

신윤정 기자 yoonjung@asiatime.co.kr

한국콜마 인터코스와 분쟁서 승소

한국콜마와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 법인 인터코스코리아 사이에서 벌어진 기술탈취 분쟁이 6년 만에 한국콜마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여기에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8년부터 한국콜마에서 일하다 미국으로 이주한다며 2018년 퇴사했지만,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 수백개를 구글 드라이브로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2017년까지 선케어 제품군을 제조하지 않다가 A씨가 입사한 후인 2018년부터 관련 제품을 만들었고, 선케어 부문에서 매출 460억원을 올렸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내렸고, 법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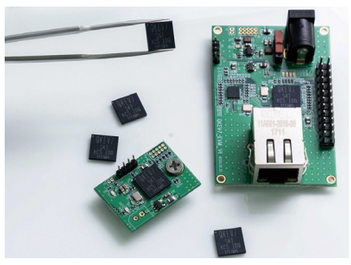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재판이 화장품 제조 기술 유출과 관련된 첫 유죄 판결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김민솔 기자 kms@asiatime.co.kr

SKT '양자암호원칩' 국정원 공식 인정

보안성 요구 기기에 탑재
국정원 보안 검증 최초 통과


양자암호원칩(QKEV7)을 탑재한 구간양자암호단말장치.(사진=SKT)

SK텔레콤이 케이씨에스(KCS)와 공동 개발 및 상용화한 양자암호원칩이 국정원의 암호모듈인증을 통과하며 우수한 보안성을 입증했다.

SK텔레콤은 양자암호원칩(QKEV7)이 국가정보원의 암호모듈검증(KCMVP)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KCMVP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중요정보 보호에 사용되는 암호 체계의 안정성과 구현 적합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현재 국가·공공기관을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에 탑재되는 암호모듈은 반드시 KCMVP 인증을 받아야 한다.

양자암호원칩은 양자난수생성기 칩과 암호통신기능 칩 등 2개의 칩이 하나로 합쳐진 보안칩이다. 특히, 양자 기반 암호키 생성 기술과 함께 물리적 복제방지 기술(PUF) 등 강력한 보안 기능이 적용됨에도 초경량, 저전력을 특징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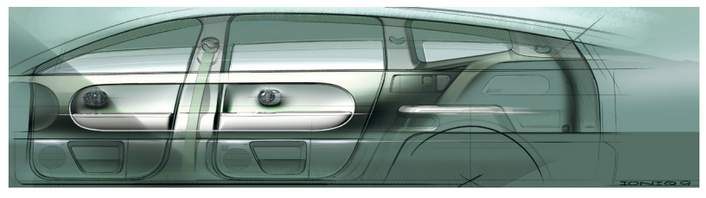
SKT는 지난 202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양자암호원칩을 공개하고 상용화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SKT가 받은 인증은 국정원 KCMVP 보안수준2등급으로, 국정원에서 암호모듈을 대상으로 부여한 인증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높은 등급이다. 양자난수생성기가 적용된 보안칩이 국정원의 보안 검증을 통과한 것은 국내 최초다.

SKT는 이번 국정원 보안검증 통과가 국방 등 국가·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체의 AI CCTV, 드론, 5G 특화망 등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영역에 양자암호원칩이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SKT와 케이씨에스는 이번 KCMVP 인증을 시작으로 국방·공공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시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난 6월 출시한 차세대 양자암호칩 'Q-HSM'으로 차세대 국가 차원의 보안 관련 실증사업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하민용 SKT 글로벌솔루션오피스 담당(CDO)은 "앞으로도 국가와 기관, 기업, 고객의 중요한 정보를 완벽하게 지켜낼 양자암호 기반의 솔루션과 제품들을 시장에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연 기자 bykim@asiatime.co.kr


아이오닉 9 내장 티저 이미지 공개. (사진=현대자동차)

아이오닉 9 내장 티저 이미지 공개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9이 조금씩 베일을 벗고 있다.

아이오닉 9은 이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될 예정으로 현대차는 아이오닉 9의 내장 티저 이미지를 13일 공개했다.

아이오닉 9은 현대차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동화 대형 SUV로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을 확장하는 모델이다.

현대차가 공개한 아이오닉 9의 내장 티저 이미지는 에어로스테틱 실루엣 안에 펼쳐진 실내 공간의 모습이 담겨 있다.

아이오닉 9의 실내는 여유로운 공간을 바탕으로 타원 모양의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했다.

특히 아이오닉 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3열까지 확장된 플랫 플로어를 통해 넓은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도어 트림, 도어 핸들 등 실내 곳곳에 적용된 타원형의 디자인 요소들은 부드럽고 차분한 실내 분위기를 연출한다.

아이오닉 9은 실내 공간을 극대화해 3열을 갖추고 최대 7명까지 탑승할 수 있으며 각 탑승자들이 다양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사이먼 로스비 현대디자인센터장 전무는 "아이오닉 9은 고객 중심의 라운지와 같은 공간을 제공한다"며 "기술, 디자인, 편안함이 모빌리티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융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신윤정 기자 yoonjung@asiatime.co.kr